

부주의와 조심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노희재 안전과장


안전은 철저한 실천으로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

가을도 어느덧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에 떠밀려 깊은 산속 골짜기까지 찾아들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지나간 추억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계절이다. 차가워진 바람에 옛 누군가의 안부를 실어 보내보지만 안부를 알 수 없는 건, 아마도 그 누군가는 나의 안부를 잊고 지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높은 어느 날, 난 서둘러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당진으로 향했다. 저 멀리 커다란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하얀 연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구름처럼 그 모습이 너무나 여유롭다.



2년째를 맞고 있는 당진지역 안전관리 협의회 회장으로 지역안전에 이바지할 터..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늘 그렇듯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쓸어 올린다. 건물을 두벽 두벽 걸어가자 반갑게 맞아 주는 당진화력본부의 노희재 안전과장, 올해로 발전소에서만 28년을 근무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미소와 절대로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의 노련함을 느끼게 한다. 원래 그의 전공은 기계공학, 1978년 의욕과 패기가 넘쳤던 청년은 (주)한국전력주식회사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다. 당시만 해도 안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고 근로자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겼다. 무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그 당시 사업장에서 특히 분진에 따른 진폐증 위험은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오직 멈추지 않는 전력 생산과 그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은 그냥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익숙함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가 진행 중인 보일러 설비에서 미고정된 발판을 보행하다 발판과 함께 추락하는 동료의 사고는 그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소한 부주의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안전이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한다. 그 이후,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계속하던 그에게 본격적으로 안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 당진화력본부에서의 일이었다. 처음 안전관리자로 배치를 받고 때마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4종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야 했던 일과 무재해 5배수 기록 달성에 이어 안전경영대상 도전을 준비하던 중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노희재 과장, 하지만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시금 안전에 대한 열의를 북돋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스스로 “움직이는 안전포스터”가 되리라 말하는 그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한다. 또한 2004년 12월 당진지역 안전관리자 24명이 모여 결성된 안전관리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타 사업장의 안전까지도 걱정하며 협의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역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은 행복이며 사랑이다”라고 외치는 노희재 과장, 안전에 천직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임재근 기자)